

## <수상한 편의점>

박현숙 글 | 장서영 그림

북멘토 | 11,000원 | 고학년

### 책 소개

몇 년 전, 3월에 내린 때 아닌 폭설로 공항 안의 음식점과 편의점에 먹거리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에 빵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. 다들 배고팠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빵 한 개를 남겨두었다. 빵 한 개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.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. 『수상한 편의점』은 기사를 바탕으로 쓴 동화이다.

고모와 함께 섬 여행을 떠났던 여진이는 폭설로 항공기가 모두 결항되면서 공항에 고립된다. 공항에 남게 된 사람들은 사연도 가지가지다. 스마트폰 중독인 성찬이와 아빠,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행기 뜨기만 기다리다 발이 묶인 아기 엄마와 아기, 남편과 싸우고 여행지에 혼자 남게 된 빨간 점퍼 아줌마, 삼촌과 여행 왔다가 심한 기침 감기에 걸린 경진이 등 사연만큼이나 성격도 제각각인 사람들은 공항에서의 기다림이 길어지고, 음식점과 편의점의 먹거리도 다 떨어지자 말다툼을 하고 신경전을 벌인다. 그 와중에 편의점 주인은 하나 남은 빵을 꼭 필요한 사람이 먹으라며 진열대에 남겨두고 사라진다.

빵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? 여진이는 심한 감기로 힘들어하는 경진이를 위해 사람들 몰래 빵을 가져오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, 때마침 공항에는 편의점 주인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퍼진다. 과연 여진이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?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빵의 행방을 알기 전에는 책을 덮기 어려울 것이다.

### 활동 목표

1. 실제 상황을 뉴스 기사로 만들어 낼 수 있다.
2.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짐작해 보고, 이야기할 수 있다.
3. 내가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, ‘배려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
### 생각열기

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해 보세요.

1. 여진이는 고모와 여행을 왜 가게 되었나요?
2. 여진이는 왜 기침을 하는 경진이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.
3. 경진이는 왜 빵을 빨간 점퍼 아줌마에게 주었나요?
4. 편의점 주인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인지 이야기해 보세요.
5. 편의점에 남아있던 빵은 누가 먹게 되었나요?

### 생각 펼치기 **내가 기자가 된다면!**

1. 『수상한 편의점』은 실제 상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동화예요. 작가의 말의 일부를 읽어

보고, 이 실제 상황을 기사로 만들어 보세요.

몇 년 전이다. 3월에 내린 때 아닌 폭설로 공항이 며칠 동안 임시 폐쇄된 일이 있었다. 곧 그칠 거라고 믿었던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고 3일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금지되었다. 공항에는 박스를 깔고 자는 사람들로 넘쳐 났고, 종이 박스 하나 값이 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. 택시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.

공항 안의 음식점과 편의점에는 먹거리가 바닥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에 빵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. 다들 배고팠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빵 한 개를 남겨 두었다. 빵 한 개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.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.

나는 그날 그 기사를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. 그리고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했다. 『수상한 편의점』은 내가 받은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이다.

2. 기사를 만들어 보았다면, 이번에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기자가 되어 내가 쓴 기사를 멋지게 읽어 보세요.

### 내가 만약 여진이라면?

1. 공항 편의점에는 딱 하나의 빵이 남아 있었어요. 그 빵은 가장 필요한 사람의 것으로 남겨 둔 것이었지요. 여러분이 여진이라면 그 빵을 누구에게 가져다주었을까요? 누구에게 왜 주고 싶은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.

2. 여진이가 경진이에게 준 빵을 경진이는 다시 빨간 점퍼 아줌마에게 주었어요. 하지만 빨간 점퍼 아줌마도 자신이 빵을 먹지 않고 편의점에 갖다 두었지요. 빨간 점퍼 아줌마는 왜 빵을 먹지 않고 도로 편의점에 가져다 놓았을까요? 자유롭게 상상해서 써 보세요.

생각 마무리 **세상은 아직 따뜻해!**

1. 빵은 하나이고, 공항에 고립된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. 하지만 누구도 빵을 훔쳐 먹지 않았어요.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빵은 돌고 돌았지요. 서로가 서로를 ‘배려’하며 생긴 상황일 것입니다. ‘배려’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?

배려 :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.

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‘배려’의 뜻이에요. 그럼 이제 여러분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세요. 배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자유롭게 써 보세요.

예) 엄마 대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마음.

2. 『수상한 편의점』에서 나온 실화처럼 여러분도 뉴스나 인터넷 또는 주변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나요?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.